

[자원봉사 웨비나 - 코로나19를 넘어 자원봉사의 지평을 열다]

3차.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 자원봉사 현장을 재구조화한다는 것

2020.07.06

(주요 내용)

- 기존 재난과는 달리 연쇄성, 복합성, 불확실성 등의 성질을 지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임시적 긴급 자원봉사활동만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있으며 예방과 일상적 대비가 필요함.
- 변화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핵심 키워드로,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회복탄력성과 공동체의 재난에 지속적 관심을 두고 직접 참여하는 재난시티즌십이 제시됨.
- 재난이 일상화되고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되는 역할과 과제가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자원, 기술과 지식을 포함한 역량, 센터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일상적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수많은 단체/기관/봉사자와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협업을 통해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어야 함
- 단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한 후 접근해야 하며 센터는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어 재난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함.
- 자원봉사 시간 관리를 비롯한 기존의 자원봉사관리방식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원봉사 관리체계와 문화를 마련해야 함.

코로나 19로 본 재난의 일상화와 자원봉사현장의 재구조화 방향

발 표 : 정진경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대 사회 재난의 특징)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최근의 재난 양태는 기존 자연·사회재난과는 또 다른 양태를 보임. 하나의 재난이 연속적인 재난을 몰고 오기도 하고, 동시에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하기도 함. 또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못한 채 투입되는 임시적 긴급 자원봉사활동만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있음.
- 현장을 재구조화 하기 위해서 우선, 재난자원봉사의 개념부터 달라져야 할 것임. 이에 “위해요소의 제거와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과 대비 차원의 일상적 자원봉사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는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안전한 삶을 짓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활동”으로 재난

자원봉사의 개념을 재구성.

(재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변화)

- 변화되는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핵심으로 지역사회 회복탄력성과 재난시티즌십이 제시되고 있음. 첫째,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위해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이전 삶으로의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이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및 복구의 전 과정에서 지향하는 목적이 될 수 있음. 둘째 재난거버넌스와 재난시티즌십은 전통적인 행정·기술 관료적 재난관리체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적인 재난거버넌스의 변화와 더불어, 공동체의 재난위험에 대해 개인들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재난시티즌십이 중요해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 자원봉사활동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 참여 욕구를 잘 담아내는 것이 현장의 과제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원봉사 FLEX)

- 코로나 19는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신속하고도 유연한 대응과 상황기반적 자원봉사 관리기술을 요구했으며 전국적이고 일상적인 감염 재난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 심리적 지지 캠페인, 온라인 자원봉사, 기부와 봉사의 융합적 실천, 지역농산물 구매나 착한 소비 등과 같이 지역경제활성화 등으로 실천영역도 확장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구멍난 사회안전망의 문제로 재난 약자는 급증하고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사업방식으로는 재난 약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 게다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지’를 문의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할 때임.

(포스트 코로나, 자원봉사센터 역량의 뉴빌딩 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현장의 위기는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음. 대인 서비스, 집합적 활동,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획일적 자원봉사관리방식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임. 수많은 단체/기관/봉사자와의 협업을 조정해 내는 중심적 역할을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을 것.
 - 유형별 대응을 위한 실제적 재난자원봉사 관리지침을 세분화해야 함. 또한,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능력을 키우고 소통, 신뢰, 연대하며 자원봉사활동 그물망을 구성해야 함.
-

-
- 재난이 일상화되고 재난 대응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되는 역할과 과제가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자원, 기술과 지식을 포함한 역량과 센터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무엇보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시 재난자원봉사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재난자원봉사체계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과제의 해결과 평상시 재난대비 자원봉사 활동 체계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함.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방식

패 널 :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변화된 자원봉사생태계)

- 자원봉사활동에의 접근방식, 관리방식, 성과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그 문제를 포괄하는 대상, 문제의 정의, 해결방식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함.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달라졌기에, 자원봉사의 대상 및 주체도 재정의 되어야 하고 접근방식과 관리방식, 성과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도 달라져야 할 것임. 자원봉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한 후 접근해야 할 것임.

(자원봉사 생태계를 관리하는 센터의 역할)

- 새로운 변화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으로 재난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함. 최근에는 스스로 계획하고 직접 움직이는 개인들이 늘고 있음.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개인들을 어떻게 찾고 협력하게 만들 것인지 알기 위해 욕구를 파악해야 함. 또한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일과 함께, 기존에 통용되었던 자원봉사센터의 관리규칙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정의 중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복잡한 사회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문제의 해결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개입과 노력이 필요함.

(안전한 활동환경 조성 과 자원봉사관리자 책임성의 딜레마)

- 감염병 상황에서 자원봉사 현장의 딜레마는 자원봉사자의 안전 보장이었음. 많은 센터가 안전에 대한 문제, 혹은 안전관리의 책임 문제로 인해 활동 자체를 중단함. 그러나 장기화된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안전하리라 보장할 수 없을 것.
-

이에 새로운 감염 재난 접근법이 필요함. 전통적 관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가 아닌 자원봉사의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동 책임의 주체를 만들어야 함.

(당면한 과제)

- 재난 상황에 센터가 걸맞은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함. 정보력을 갖추어야 시민들을 안내할 수 있음. 이 정보의 발신의 대상은 네트워크 협력의 주체들이기에 공동의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센터와 센터끼리도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공유해야 할 것.
 - 청소년들의 인성과 시민성 학습에 있어 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함.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청소년 봉사활동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이에 더 이상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 학습으로 전환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경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그러기 위해 센터, 교육청, 해당 학교, 학부모 조직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자원봉사 시간 관리를 비롯한 기존의 자원봉사관리방식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원봉사 관리체계와 문화를 마련해야 함.
-